해남군,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구축 '박차'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25기종 116대 운영

산이·황산·마산 등 접근성 획기적 개선 불편 해소

해남군이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충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은 4일 산이면 금송리에 위치한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식을 가졌다.

국비를 포함해 도·군비 등 총 17억원이 투입된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사무실, 농기계보관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농업용굴삭기, 퇴비살포기, 쟁기, 수확기 등 등 25기종 116대의 임대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설을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에 개소식을 갖고,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북부사업소 개소에 따라 그동안 해남읍의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나 문내면 서부사업소를 이용해야 했던 산이, 황산, 마산 등 면지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2005년 해남읍 농업기술센터내 본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 서부사업소 개소, 2015년 남부 사업소 개소에 이어 올해 북부사업소를 개소함으로써 4개소에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갖추게 됐다.

내년에는 옥천, 계곡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용가능한 동부권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 하반기 개소 예정으로 관내 5개소에 걸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시설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9년 4,835농가, 7,495일 임대 실적에 이어 2020년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4,770농가에서 7,470일을 임대해 사용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소식을 통해 명현관 해남군수는"해남지역에 4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들어섬에 따라 민선7기 주요 공약중 하나인 권역별 사업소 구축이 완료단계에 들어섰다"며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후속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군정혁신 우수사례 1위 '청년 정책'

청년아카데미 운영·청년센터 조성 등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

완도군은 지난 5일 '2020년 군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정보 공유를 통해 혁신 활성화 도모 및 '20년 지방자치단체 정부 혁신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실시하였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서면 심사를 진행해 23개 사례 중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에 오른 우수사례는 ▲전남 최초 장애인 드론아카데미 운영,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코로나19 확산 방지 추석 명절 '이동 멈춤' 운동 전개, ▲청년과 연결되는, 청년이 신뢰하는 청년정책 추진, ▲해조류산업의 시장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 정책 등이다.

최종 심사는 완도사회혁신네트워크, 완도군지역혁신협의회, 완도군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 전문 심사단을 구성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온라인 투표와 발표에서 고루 점수를 획득한 '청년과 연결되는, 청년이 신뢰하는 청년 정책'이 1위로 선정됐다.

청년 정책은 그동안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재인 상황에서 청년에게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건강한 청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강진군 신규일자리사업 발굴 워크숍 개최

일자리창출 우수지역 거듭나기 위한 강진형 일자리모델 발굴

강진군이 지난 6일 '2021 일자리창출 역량 및 신규일자리사업 발굴'이란 주제로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강진군청 일자리업무 공무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일자리평가분석센터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일자리연계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강진군 신규일자리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 우수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진군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워크숍에는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본부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정책 방향, 김두철 고용혁신추진단 수석연구원의 일자리대상 수상을 위한 협력방안 등 강진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이승옥 강진군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체류형 관광지 조성, 제2강진산업단지 조성 등 강진군이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성군, 제2기 청년협의체 출범식 가져

위원 28명 위촉… 향후 운영 방안 등 논의

장성군이 '제2기 장성군 청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 2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출범식을 미뤄오다가, 방역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듦에 따라 출범식 개최를 결정했다.

장성군 청년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하는 구심체 역할을 맡는 단체다.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청년 문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펼친다.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토의 시간을 가진 청년 위원들은 향후 청년협의체 운영 및 활동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장성군은 추후, 청년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자주 모임을 갖는 한편, 청년센터 조성 추진 등 실질적인 협의체 활동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인구 감소시대에는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장성군 청년협의체가 청년 문제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버넌스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나서

향상 교육·인식개선 노력

정종순 군수 "지역사회 협력"

장흥군은 지난해 제정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에 따라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은 장흥군청소년수련관(전태진 관장)과 장흥교육희망연대(최경석 대표)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권리회복지도 작성, 지역사회 인식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은 600여명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개선 사례를 수집했다.

이어 11월 5일 군민회관 3층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장흥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희망연대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김신 강사는 사업장에서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수당 ▲산재보상 ▲청소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근로 ▲야간, 휴일 근로금지 ▲유급 주휴일부여 등 10가지 주제에 대해 교육했다.

군은 이달 안으로 장흥읍내 상가를 중심으로 표준근로계약서와 안내책자를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정종순 군수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보장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